불량출판물, 이대로 내버려둘 것인가

「청소년문화와 도서잡지의 사회적 책임」세미나 중계

출판의 자유화 물결과 함께 저질 · 음란한 도서잡지가 범람하고 있다. 일부 저속한 주간지 · 월간지를 비롯, 비정상적으로 거리에 나도는 이들 불량출판물들은 주로 청소년들 사이에 은밀히 읽히고 있다는 데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불량출판물들로부터 청소년을 어떻게 차단하고 보호할 것인가.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鄭元植)는 「청소년문화와 도서잡지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5월10일 아카데미하우스)를 통해 오늘의 출판 · 잡지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독서를 위해 풀어야 할 문제들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다음에 이 세미나에서의 주제발표 및 발제강연 요지와 토론내용, 그리고 불량출판물의 유통실태, 관련 사회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살핌으로써 대응책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는다.

청소년문화와 도서잡지의 사회적 책임

孫鳳鎬 서울대 사범대 교수 · 철학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소년들이 타락하는 것은 청소년들 자신의 책임은 아니다. 주위로부터 아무런 자극과 영향을 받지 않고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착해지거나 악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다.

청소년들은 합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고, 객관적이기보다는 충동적이다. 그리고 아직도 옳은 것과 잘못된 것,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해로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른들에 비해 약하다. 오히려 청소년들은 주위환경에 대해서 매우 수동적이고 민감하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도덕적으로 병들어 간다면, 그 병의 원인은 주로 사회적인 영향에 기인하는 것이요, 따라서 이는 그들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다. 기성세대가 배금주의와 향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도 향락을 위해 비행을 저지르고,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도덕적 권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도덕교육은 청소년들을 더욱 냉소적이게 한다. 특히 이 도덕적 냉소주의는 실로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량출판물은 비행을 부추긴다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 가운데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하는 것은 불량출판물이다.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증 · 고등학생들 가방 속에는 음란출판물이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고, 한권의 책은 전 학급 학생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윤독되고 있다. 성인용 만화나 음서와 다름없는 주간지들이 우리나라처럼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이 청소년들에게 팔리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미성년층 독자가 없으면 그런 출판물들은 경제적으로 수지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불량도서들은 주로 그런 것을 읽고 보아서는 안될 대상들을 위하여 제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놓고 청소년들에게 파는 것은 그들의 몸을 망치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이에 못지 않게 불량서적을 출판해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청소년들의 비행은 결코 자신들의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 부모들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비행은 반드시 그 비행의 희생자가 있게 마련이다. 청소년들에게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면 그것은 쉽사리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것이요, 조장된 폭력은 폭력을 휘두르는 청소년 한사람의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 성적인 죄나 폭력, 그리고 그것들과 쉽게 연관되는 절도, 강도, 살인은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고 사회 전체가 결과적으로 그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가끔은 매우 퇴폐적이고 도색적인 도서잡지를 만들어 놓고도 그것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거나 예술작품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위선적인 변명이다. 그런 도서잡지를 제작한 사람이 그것을 청소년기에 있는 자신의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거침없이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요, 만약 자신의 경우는 예외로 삼는다면 이는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

온갖 변명에도 불구하고 불량도서가 출판되는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호기심과 본능적 욕구를 이용하여 돈을 벌어보려는 것이며, 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비도덕인 것이다.

강력한 사회도덕적 제재 가해야

우량도서를 출판하여 돈을 버는 것은 동시에 우리 청소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는 일이며, 불량도서를 출판하여 청소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유해식품을 만들어 사람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보다 더 악질적인 비도덕이다. 그러므로 우량도서로 번 돈은 무한한 도덕적 가치를 갖는 반면, 불량도서로 번 돈은 수많은 우리의 귀여운 청소년들의 미래와 우리 사회 전체를 타락시킴으로써 얻는 부끄러운 돈이다.

특히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기업들이 청소년들의 불건전한 본능을 자극하는 출판물을 만들어 내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많은 돈을 벌려는 목적 이외에 언론기관이 그런 불량출판물을 제작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불량도서 출판 자체가 이미 비도덕적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교육을 담당해야 할 언론기관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냉소주의를 키우기 때문에 더욱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다.

불량도서들을 출판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이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이며, 그런 일에 자신의 고귀한 노동력과 창조성을 투입한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위신상하는 일인지, 그 댓가로 자신과 가족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사실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귀여운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의식을 갖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런 출판물과 그 종사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경제적, 도덕적 제재를 가할 의무가 있다.

청소년 도서잡지의 문제점과 개선책

車京守 서울대 사범대 교수 · 사회교육

요즈음의 청소년들이 원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나 잡지들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성장을 도와주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잘못 인도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에 있어 독서는 폭넓은 교양으로서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인격형성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텔레비전을 통한 감각적인 영상문화를 극복하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지성을 기르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독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용 도서와 잡지는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성인잡지 빰치는 청소년잡지

도서잡지의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층의 건전한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좋은 책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책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도서잡지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서잡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오늘의 청소년문화가 욕구자극적, 쾌락추구적 성격을 갖고 있는 토양에서 청소년 대상의 도서잡지도 그러한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인기 탤런트' 대신 '과학자'의 사진을 청소년잡지에 실었을 때, 그것을 몇사람이나 사볼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다. 이러한 청소년문화의 추세는 또한 우리 사회의 풍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 청소년들의 대부분을 이루는 학생들(중학교 취학률 98%, 고등학교 취학률 80%)은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도 못할 뿐 아니라 수험공부 때문에 교양서적을 읽을 시간도 없다. 게다가 부모들의 독서에 대한 태도, 텔레비전의 흐름, 사회 일반의 가치관이 좋은 도서잡지의 개발에 불리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여건으로 청소년 대상의 도서가 희귀하고, 그나마 있는 것도 입시준비용 수험서 일변도가 아니면 소설 · 시 · 수필 등 문예물에 편중되어 있다.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지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철학, 사상, 역사, 과학 등의 교양도서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 도서는 감상적인 면으로 흐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뜻있는 부모나 교육자들의 가장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청소년 대상의 월간잡지들이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다는 Y지, H지, J지 등은 한결같이 성인잡지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같은 유형으로 제작되고 있다. 호화판 컬러 페이지는 탤런트, 가수, 영화배우의 사진이 아니면 신발, 옷, 내의, 화장품 광고로 장식되어 있고 선정적 · 관능적 사진도 한둘이 아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 대상의 도서잡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교육적 견지에서보다는 흥미본위로, 또는 상업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전문도서 · 전문잡지 개발해야

건전한 청소년들의 독서와 도서잡지 개발을 위해 몇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청소년용 도서잡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인용 잡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외설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잡지들은 특수하게 제한된 구역내에서만 배포되도록 하고, 개방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나 무제한적인 배포는 제한돼야 한다.

둘째, 청소년용 도서잡지의 제작기법이 향상되고 값이 싸져야 하며, 신간도서 정보의 전달, 소개가 강화돼야 한다. 컬러문화, 소비문화, 속도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알맞도록 면수는 200면이 넘지 않고 활자를 크게 하며, 컬러판 사진, 삽화 등으로 편집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 이하가 적당하다. 어떤 책이 있는지 신간소개를 널리 하여 독서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청소년 도서잡지의 광고에 대해서는 사회의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째, 특수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전문도서나 전문잡지가 청소년들을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 첨단과학과 컴퓨터, 생명공학 등 과학은 물론 철학 · 역사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전문화된 도서와 잡지의 개발이 요청된다.

네째, 청소년 도서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과 연계되어 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학생들이 시험공부에 바빠서 시험공부 이외의 책은 볼 시간이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책이 개발되어도 중고교생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 뻔하다. 또 교과서 이외의 책을 부교재라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제도 역시 시정돼야 한다. 교재의 사용과 학습의 방법은 교사들에게 일임해야 한다.

끝으로, 독서시설의 확대, 공적 보조금의 지급, 출판편집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확대는 물론 직장도서관이나 지역사회도서관, 학교도서관 확대 등이 고려돼야 하며, 상업성은 약하나 교육성이 강한 청소년도서의 개발을 위해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출판기금의 형성, 도서판매대금에서 일정 비율을 반드시 청소년용 도서개발에 사용하게 하는 법률적 규정도 필요하다.

대중오락지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姜聲渭 한국외국어대 교수 · 철학

87년 후반기 이후 언론 · 출판계에 밀어닥친 자유화 · 자율화 바람과 함께 수많은 잡지들이 앞을 다투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나라의 문화수준은 그 나라의 출판물들의 가지수와 발행부수 및 그 질에 달려 있다고들 한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더 많은 출판물들, 특히 주간 · 월간 · 계간 잡지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질이다. 너절한 오락지 열가지보다 질적으로 정선된 한가지의 잡지가 문화발전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잡지들이 다 학술지나 전문지들처럼 질에만 치중하기를 바랄 수도 없다. 다만 청소년들을 저속 · 음란한 오락잡지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뛰어난 좋은 잡지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새로 나온 잡지에 더 문제 많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언론 ·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질적으로 저속한 잡지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러 주간지들과 월간지들이 87년 후반기 이후, 특히 88년 1월 이후부터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현상은 윤리위원회의 심의통계에 잘 나타나 있다.

주간잡지의 경우 윤리위원회의 제재(주의 · 경고 · 게재중지)를 받은 건수가 86년에 178건이던 것이 87년(10개월)에 199건, 88년(1월~4월)에는 67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87년도의 제재건수 199건 중 58건을 차지했던 「주간J」가 88년에 들어와 자진 휴간하자, 개인기업이 아닌 신문사들에서 간행하는 「선데이S」와 「주간K」가 88년 1월~4월 불과 4개월 동안에 각각 31건과 15건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월간지의 경우는 86년에 165건, 87년(10개월)에 87건으로 그 가지 수에 비해 제재건수는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88년에 들어와 새로운 잡지들이 많이 생기면서 1월~4월 4개월만에 71건을 기록, 벌써 작년도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 나온 잡지들이 기존의 잡지들보다 더 난잡하다는 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사회의 분화에 따라 잡지나 간행물도 세분화, 다양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반해, 우리의 잡지들은 거의 모두가 획일적으로 저속하여 청소년은 물론 어른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히 제재를 받은 절대다수의 잡지가 '미풍양속 저해'라는 심의기준에 저촉되고 있음은 주목된다. 가령 주간지의 경우, 남녀정사장면을 담은 영화스틸과 만화, 국내외의 저속한 누드사진, 유흥업소의 퇴폐행위, 근친상간 등 모두가 성과 연관된 것들이다. 월간지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말썽을 빚고 있는 잡지들은 주로 유사건강관련 잡지, 만화전문지, 최근에 새로 나온 대중오락지, 연예정보지 등이다.

"내 자녀에게 권할 수 있는 잡지를"

물론 우리가 통계를 내는데 이용한 잡지들은 많은 잡지들 중의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수많은 음식물들 중에 어쩌다 들어있는 한 방울의 독극물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듯이 많은 좋은 잡지들 사이에 끼어 있는 몇권의 좋지 않은 잡지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과 몸을 죽이거나 해칠 수도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을 이런 나쁜 잡지들로부터 보호하느냐 하는 것이다. 나름대로 몇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해보면,

첫째,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언제나 보다 더 좋은 잡지를 만들되, 그 기준은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고기를 달라는 자녀들에게 뱀을 주는 어버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판매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어느 사회에나 어른들만을 위한 서적 · 잡지 · 영화 등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어른을 위한 잡지가 어린이들이 드나드는 서점에 버젓이 꽂혀 있어서는 안된다. 성인용 잡지들은 청소년의 손에 들어갈 수 없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성인용 잡지들은 우편으로 배달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세째, 대중잡지는 물론 저속한 내용이 실릴 수 있는 간행물들에 관한 심의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자유화란 곧 '심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자율심의가 철저하기 때문에 출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자유에는 한계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에 자율적인 심의는 당연하다.

앞서 살펴본 심의내용을 보더라도, 일반인들의 선입관과는 달리 절대다수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들이며, 어떤 불공정한 정치적 이유가 끼어든 것은 없었다.

활자매체는 영상매체와는 달리 오래 간직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영향이 더 크다. 따라서 우리는 저질 잡지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에 큰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